

소홀히 대하지 않으신 문제

2014년 10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돌아보실 때였다.

이날 살림집을 돌아보시면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어느한 복도를 지나시다가 점멸기에 시선을 멈추시였다.

그 점멸기는 사람이 나타나면 불이 켜지고 지나가면 저절로 꺼지게 되어있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복도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것을 자동적으로 수감하여 불이 켜지고 꺼지게 하는 점멸기를 설치하였는데 이렇게 하면 전기도 절약되고 사람들에게도 편리할것이라고, 살림집이나 기관의 복도들에 점멸기를 설치하는것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한W의 전기라도 나라의 귀중한 재부로 여기고 극력 아껴쓰려는 소중한 마음이 곧 애국이라는 숭고한 뜻을 그날 일군들은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다.